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통 일 원

< 내용 요약 >

○ 문건상에 나타난 북한의 정책변화 징후는

첫째,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사상학습과 각종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정권 이양기를 전후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주의규범의 이완현상을 경고하고 내부결속을 다져왔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1984년 합영법 채택 이후 10여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기술도입과 무역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없이 경제적 궁핍만 가속되고 있으며,

셋째, 사회적으로는 김정일정권 출범을 앞두고 적대계층을 포섭하는 한편 '공산주의 미풍사폐'를 선전, 체제안정을 위한 대중조작에 치중하고 있음.

○ 그러나 귀순자 증언에 나타난 북한의 실태는,

첫째, 북한사회는 70년대가 가장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불안정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부패, 거짓, 절도 및 부조리 등 사회주의일탈 징후군의 증가는 북한의 주민의식을 지배해 온 사회주의 규범이 해체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

셋째, 결국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강력한 사회통제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와 성분불량자라고 불리는 잠재적 체제도전자를 양산하고 있음.

목 차

I. 분석 목적 및 방법

II. 주요 문건에 나타난 정책변화 징후

1. 정치적 측면

가. 정권이양기의 북한사회

나. 다양한 사상학습

2. 경제적 측면

가. 인민들의 의식주문제와 경제정책의 변화

나. 자본시설 부족과 노동집약적 형태의 산업구조

다. 사적소유의 경고

3. 사회적 측면

가. 혁명적 낙관주의

나. 계층정책의 변화징후

4. 소결론

Ⅲ. 증언에 나타난 주민의식구조 변화

1. 사회주의규범 해체과정
2. 주민의식구조 변화
3. 청소년의식구조 변화
4. 여성의식구조 변화
5. 소결론: 북한주민의식 변화특징

Ⅳ. 사회통제

1. 성분분류 관리
2. 대내 통제조직 강화
3. 주민사상교육 및 외부정보 유입차단
4.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정책(Carrot and Stick)
5. 통제정책의 역기능: 인권침해

Ⅴ. 북한사회 변화전망(결론)

【참고자료】 귀순자의 사회적 배경 및 현황

1. 귀순자의 연대별 분포
2. 귀순자의 지역별 분포
3. 귀순자의 직업별 분포
4. 귀순자의 귀순동기별 분포
5. 귀순자의 귀순경로별 분포
6. 귀순자의 교육수준 분포
7. 귀순자의 현직업별 분포
8. 귀순자의 생활정도별 분포
9. 소결론

I. 분석 목적 및 방법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이은 소련방의 해체,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채택은 남북한의 국제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남북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국제환경변화가 북방정책과 맞물려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가졌던 구소련 및 동구권, 중국 등과 국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무역규모의 증가와 친선관계를 증진하여 왔다.

한편 폐쇄적 사회주의체제를 고집해온 북한은 몰락한 사회주의권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더이상 이들 국가의 우호가격에 의한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들국가와의 무역거래가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제방식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던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조차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역규모의 축소는 경제적 침체로 이어져 정치적 실정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의식주문제를 비롯한 삶의 질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사망을 전후로 한 정권이양기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무마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사업우선의 사상교양과 함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체제가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일의 주요 담화 및 논문과 93년도 김일성 신년사를 비롯하여 93~94년간 로동신문, 중·평방의 논·사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93~94년도 귀순자 및 방북자 등 5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상 및 의식변화를 정리하여 북한의 변화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통일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문건 및 증언>

| 구 분 | 내 용 |
|-----|--|
| 문 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93년도 신년사 ○ 김정일 담화 및 논문 4 건 ○ 93~94년 로동신문,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 논·해설 |
| 증 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94년 귀순자 40명 및 방북자 4명, 기타 6명 등 총 50명 |

II. 주요 문건에 나타난 정책변화 징후

북한에서 발표하는 담화 및 언론방송의 논·해설은 대부분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방침, 그리고 당정책을 선전·옹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문건들을 통해 주민들을 끊임없이 교양시켜 왔으며 주요 계기시마다 북한사회가 안고있는 제반 문제점·병폐 등에 대해 그 개선을 간접적으로 촉구하였다.

따라서 주요 문건들 속에서 북한 사회변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용분석과 시대적으로 종단비교를 통해 현재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변화의 대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측면

가. 정권이양기의 북한사회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내부의 반체제세력의 존재여부가 체제붕괴의 결정적 요인임을 계속하여 강조해오는 한편 이들의 외부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반사회주의세력에 대한 분쇄와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일성은 93년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존엄과 행복한 생활은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우리인민의 오늘의 행복도 내일의 희망도 있을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곧 우리인민의 생활이며 생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을 전후로 김정일의 ‘위대성’과 ‘아버이’임을 선전하고 그에게 무조건적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수령 - 당 -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임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이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월)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강조한 이후, 북한은 ‘아버이와 수령’, ‘충과 효’, ‘어머니당’, ‘혁명적 대가정’, ‘주체의 인생관’, ‘집단주의적 생명관’, ‘혁명적 수령관’ 등을 주제로한 교양을 통해 김부자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또한 김정일이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김정일은 93년 3월호 『근로자』에 게재한 담화(‘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은 허용될 수 없다’)에서 반체제세력에 대한 분쇄를 재차 강조하고,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김부자 체제유지에 저해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촉구하고 이를 정당화시켜왔다.

「어느 체제는 유지와 존속을 위해 체제도전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체제도전세력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이다. 즉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의 체제도전세력은 “오직 영도자인 김정일의 사상의지로만 생각하고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에 반하는 사람들”로 범위가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정권의 독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적대분자들의 파괴 암해책동을 철저히 진압해야 함. 특히 외부와 결탁된 내부 분자들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하며, 낡은 사상에 물젖어 법질서를 어기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함.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임. 사회주의 정권이 적대분자들에 적용하는 권력행사를 마치 인권 유린처럼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동임.<1993. 11. 7, 로동신문 논설>

영도자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온갖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원천이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변치 않는 일편단심으로 싸워 나가야 함.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도 오직 영도자의 사상의지로만 생각하고, 백가지를 실천하여도 오직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며, 공산주의 미풍선구자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충성과 효성의 일편단심을 꽃피워 나가야 함.<1993. 12. 7, 로동신문 논설>

이와같이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반체제세력에 대한 척결과 김정일에 무조건적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권세습 및 유지에 대해 회의적인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식량부족 등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통제이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계속되고 내부에 그와 연결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써 반혁명적·반사회주의적 요소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내부의 반동들이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며 사회주의를 파괴하려고 책동하는 것을 제때에 짓부셔 버려야 함.<1992. 1. 3, 노동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김정일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역사적 경험은 혁명의 대가 바뀌고 내외정세가 복잡할 때 야심가, 변절가들이 나타나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책동한다는 것을 보여줌. 당안에 반혁명적 사상조류가 나타나면 그에 기초하여 반당집단이 형성되고 당을 파괴하게 됨.<1992. 10. 10, 노동당 창건 47돌즈음 발표 김정일 논문: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나. 다양한 사상학습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94. 11. 1)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하에서는 집단주의원칙이 훌륭히 구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이 『집단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 사회주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이 있다”고 강조, 주민들의 단결과 결속을 촉구하고 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개인주의 사조의 침투를 강력히 재경고하는 것이며, 북한당국은 붕괴된 사회주의국가들의 혼란상과 주민생활난을 확대 묘사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각계 각층 인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상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일련의 사상학습은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주의의 배신자가 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해서 하나로 단결되면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병들면 사회주의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한편,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 해체를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못한 비극적인 사태”로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남북한 생활상조차 왜곡하고 있다.」

북한 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소장인 이춘광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UN기구에 가서 사업할 때, 하루는 길에 나갔다가 8년전 동구 사회주의 나라에 가서 사귀었던 전자계산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교수가 참외장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언급함.<1993. 12. 9, 중앙방송>

구소련에서 한때 이름을 날리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던 문화예술인들이 오늘에는 실업자로 되거나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음.<1993. 12. 16, 중앙방송>

“북한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이고 남한은 극소수의 착취계급을 위한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의무교육제도와 무료진료제도 실시하고 남녀간 완전한 평등권이 실현된 반면, 남한은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인간지옥이고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희생물이다”라고 보도함<1994년 1월, 중앙방송 ‘남북한 생활비교’>

북한이 여기서 자본주의로 체제변동을 겪은 구사회주의권의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의 예를 과장하면서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이라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 사회의 비판과 변화의 주도세력이 될 가능성이 큰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식인들은 기능상으로 보아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할 전문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평등원칙 아래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수를 받음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당·군조직 지도간부들의 안일한 복무자세를 비판하고, 각종 당정·군로·사회단체 대회를 열어 혁명성의 퇴조를 경계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인다운 입장과 높은 책임성은 당적 양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혁명적 양심과 당적 양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보다 당과 인민의 이익, 혁명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적 의식임. 오직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는 생활만이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로 되고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나, 주인다운 태도가 없으면 요술이나 피우고 자리지키거나 하면서 어물어물 살아나가게 됨.<1994. 9. 28, 중앙방송>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동원한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1994. 6. 6~7)에서 사로청 위원장 최용해는 의정보고를 통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조국보위초병’이 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하고 300만의 총폭탄이 되라”고 촉구한 것은 불평불만이 쌓인 주민들을 긴장시켜 위기를 모면하고, 이들 소년단을 체제유지의 3대지주인 군인(120만), 지식인(160만), 사로청원(500만)에 포함시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소년예술 선전대활동』을 비롯한 사회정치활동과 부모들의 일손돕기를 강조한 것은 노동기피 등 최근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회일탈현상속에서 어린 소년들까지 『경제선동대』로 동원하여 노동현장을 ‘일하는 분위기’로 고무하고 부족한 일손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창립된 사로청 산하조직으로서 만 7~13세(인민학교 2학년~고등중학교 4학년)까지 300여만명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해 이들을 “공산주의 후비대·혁명투사”로 양성하는 조직임.

2. 경제적 측면

가. 인민들의 의식주문제와 경제정책의 변화

북한은 선전·선동구호가 요란한 곳이지만 그중에서도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구호는 북한이 처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이 1962년 10월 2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 보고에서 “1964년에는 흰 쌀밥과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래 30여년이 지난 1993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라고 신년사에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목표가 “흰쌀밥, 고기국, 비단옷, 기와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부족이 없는 인민의 낙원”이며 김부자의 영도아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서 김부자를 아버지로 받들고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1994. 6. 29, 중앙방송, 『방송정론』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불행’)고 말하는 자기모순을 시현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증대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80년대이후 악화된 생필품 공급사정 개선 및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첫째, 주택난해소를 위해 제3차 7개년 계획(87-93)기간중 매년 15-20만세대의 주택건설을 계획하였으나 목표의 1/10수준에 머무는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더욱이 김정일의 『웅대한 평양건설구상』을 실천한다는 명분아래 군인건설자, 청년·학생 및 각지방 건설단 등을 동원하여 평양시 주택건설 및 시가지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는 바, 이로 인해 평양과 지방과의 주거생활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주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2년 로동신문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92년도 주택건설 실적은 평양 5만세대, 지방 2만 2천세대(평안남북도:9070, 함경남북도:2200, 강원도:1200, 기타:9530)이며, 현재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약 65%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둘째, 국가계획에 의한 생필품 공급외에 각공장·기업소내 생필품 작업반 및 부업반 등이 유희자재, 폐자재, 부산물 등을 이용한 이른바 『8·3 인민소비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매년 8월 3일을 전후하여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각 시·군들의 경쟁적인 『인민소비품』 증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 극심한 원자재난으로 그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8·3 인민소비품』 생산은 1984. 8. 3 김정일이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 시찰을 통해 폐자재·부산물을 이용한 주민소비품의 생산을 확대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

1.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정무원 제정: 89년 5월)
2.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을 관철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당중앙위 제6기 16차 전원회의 결정: 89년 6월)
3. 『가내작업반, 부업반 관리운영 및 가내편의 봉사사업에 관한 규정』 (정무원 제정: 89년 8월)
4. 경제선전활동: 『8월 3일 가내작업반 창조운동』, 『8월 3일 인민소비품 증산운동』,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모범군 칭호 쟁취운동』 등

5. 전국 경공업대회(90년 6월)

6. 『경공업제일주의』 경제정책 채택(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기존의 중공업우선정책의 변화를 의미함.

세제,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87~93)을 실패로 규정한 이후 2-3년간의 완충기를 두고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농업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점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식량 및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만 증대가 체제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노동집약산업인 경공업의 육성을 통해 주민생활수준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정책변화로 평가된다.

90년대 들어서부터 북한경제는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감퇴, 노동행정 관계자들의 탈법적 행위 등이 심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제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중 북한의 1인당 평균 생산지수를 도출해 보면 알 수 있다.

1인당 평균생산지수의 변화를 총량적으로 살펴보면 87~89년 기간중에는 1인당 평균 생산지수가 101.0 수준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임으로써 93년에는 71.4%로 86년에 비해 28.6% 낮아지고 있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북한의 1인당 평균 생산지수>

| 구 분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1인당 평균 생산지수 | 100.0 | 101.0 | 101.2 | 100.7 | 94.2 | 85.4 | 76.3 | 71.4 |
| 전년비 증가율 | - | 0.9% | 0.9% | - 0.9% | - 6.0% | - 14.7% | - 11.1% | - 6.8% |

※ 1인당 평균 생산지수는 실질 GNP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 기준년도 대비 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이와 같이 1인당 평균 생산지수가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이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본시설 확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정된 자본량에 노동의 과다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열악한 산업구조를 극복하기위해 서구의 자본주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1984년 합영법을 채택·발표한 이래 꾸준히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구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북한주민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외부정보의 유입에 따른 제반 충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고민이 있고 이러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북한이 합영법을 채택·발표한 이후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투자유치 관련법은 ①합영법(1984. 9월), ②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1992. 10월), ③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1993. 1월), ④지하자원법(1993. 4월), ⑤토지임대법(1993. 10월), ⑥외국투자은행법(1993. 11월) 등으로 총 여섯차례 10개의 법과 그 시행령 등을 제정하였음.

나. 자본시설 부족과 노동집약적 형태의 산업구조

북한은 탄광과 협동농장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이 제대하는 군인들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배치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한 예술영화를 제작하여 각 군부대에서 상영하며 제대군인들의 집단배치를 고무·찬양하고 있다.

북한이 오랜 군복무(7~10년)를 마친 제대군인들에게 직장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건과 환경이 열악한 탄광과 협동농장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은 당면한 에너지난과 식량증산을 위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입대중인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공장·기업소에서는 전력부족 및 원료난 등으로 조업가동율이 떨어진 상태(1994년 8월 현재 40%이하: 월간 북한동향 1994. 8월호 p. 20 참고)에서 더이상의 노동인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집단배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중반이후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자 나타난 현상으로, 제대군인의 집단배치와 더불어 정예·특수부대 군인 등을 제외한 군복무자들조차 건설부대를 편성하여 경제·건설현장에 대거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군대를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86. 9. 6 군최고사령관 김일성 명의로 15만 병력의 건설공사 투입을 공식 발표한 이래 금년 11월 9일 최고사령관 김정일 명령 제0051호(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 건설 지시)에 이르기까지 기업소, 주택, 도로, 교량 및 탄광 건설 등 대형공사에 부족한 노동력 충당 차원에서 군 병력의 건설현장 투입을 계속해 왔음.

이와같이 제대군인 및 현역군인을 건설현장에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은 북한주민들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보상없는 노력동원에 따른 만성적인 노동기피현상 내지는 혁명성 퇴조로 인한 생산성하락과 ‘내 것이 아니다’라는 나태한 근로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인민군 병력 제대군인 투입 주요 건설현황>

| 구 분 | 주 요 건 설 현 장 |
|------|--|
| 기업소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제2단계 가설,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능력확장공사, 10월 9일 강철종합공장, 3대혁명전시관,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
| 주 백 | 평양 살림집 건설, 평양 통일거리 살림집 - 작업: 골조구조, 간벽쌓기, 미장, 전기배관 |
| 도 로 | 성천강 다리공사(평양-회천간 고속도로간), 평양궤도 전차화 공사(인민경비대 담당)-하루 600여미터 노반 굴착 및 포장 완료, 평양-향산 고속도로 |
| 교 량 | 농라 쇠파출다리 공사-80미터 기압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치기, |
| 탄 광 |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제대군인)-사흘간 제대군인 634명 배치, 안주·구장·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2.8 직동청년탄광 |
| 대형공사 | 금강산댐, 남포갑문, 전승기념탑, 단군릉 |

또한 현역군인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김정일명령 제0051호:1994. 11. 9) 또 다른 목적은 군병력의 평화적 이용을 과시함으로써 대미·일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현시기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이미지 부각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제대군인 및 현역군인의 경제건설현장 투입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보다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소위 『공산주의 미풍』이란 명분으로 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평·불만을 무마하고 있다.

특히 92년 10월부터는 농촌지역은 물론 탄광 및 도로공사 등 중노동현장에 여성근로자들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의 장비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인력 투입만으로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노동생산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사적소유의 경고 (X)

북한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제하의 『김일성 방 송대학』 특강(94. 8. 15, 평방)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생산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민적 소유』: 국가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 등임.

『협동적 소유』: 당과 국가의 지도·협조아래 농민·수공업자·중소상공인들의 사적 소유를 통합한 것으로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및 중소공장 기업소 등임.

아울러 북한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혁과 개편 바람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를 허물어 사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근본요인이자 사회의 경제구조와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적소유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협동농장 농민들이 결산분배에 따라 지급받는 현물이나 화폐, 또는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재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수단 및 생산물을 이미 독점한 북한이 이와같이 세삼스럽게 사적소유를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북한주민들사이에 이미 상대적 박탈감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같이 못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계층구조에서 당정간부나 일련의 외화벌이사업 일꾼들의 경우 사적소유가 증대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 또한 암거래이지만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

가. 혁명적 낙관주의

북한은 그간 주민들로 하여금 “혁명적 낙관주의”에 입각해 그들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원할 수 있는 『긍정적 모범』 사례들을 발굴, 이를 대중조작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각종 선전매체들과 당 및 사회단체 조직들은 이와같은 긍정적 모범들을 선전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일이 이들에 대해 직접 『감사』를 전달, 김정일의 영도력을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1일 『전국 공산주의미풍 선구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공산주의미풍 선구자들은 참다운 주체형의 인간들이라고 찬양하면서 “공산주의미풍”을 전사회적 범위에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북한이 이제까지 선전하여온 공산주의 미풍사례들은 ①3대에 걸쳐 자기집에서 키운 목란꽃 나무와 백도라지를 만경대 고향집에 바친 것, ②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것, ③딸자식 4형제를 모두 영예군인에게 시집 보낸 것, ④석탄증산을 위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한 것, ⑤호텔에서 손님 분실물을 찾아 준 것, ⑥빈 터에 심은 벼를 애국미로 바친 것, ⑦어려운 시기 목숨을 바쳐 김부자의 초상화를 보위한 것 등이다.

이러한 미풍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주민들이 부모없는 고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사례를 빈번히 보도하면서 이를 “고상한 공산주의적 소행”이라고 찬양하고 이는 하나의 사회적 풍조가 되고 있다고 선전(93. 3. 4, 중앙방송)하는 것은 이들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애육원 및 보호소 등 기존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고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고아들은 주로 건설공사 및 탄광 등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말미암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부모의 탈주 또는 반체제범으로 구속, 이혼과 미혼모에 의한 고의적 유기 등에 의해 생겨나고 있으며, 북한은 93년 11월 평양방송을 통해 92년 1월에서 93년 9월 사이에 북한 전역에서 537세대가 1,060명의 고아들을 입양시킨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94년 7월 4일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한 가정을 적극 보살핀 두터의 군지휘관에게 『특별감사』를 전달하였다고 선전하였음.

둘째, 북한은 금년 5월 13일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일이 영예군인(상이용사)들과 결혼한 한가족 세자매에게 감사와 결혼식상 및 선물을 전달한 사실과 그의 여섯명의 영예군인 가족을 소개하며 영예군인과의 결혼을 미화하고 장려한 것은 이들 영예군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북한의 영예군인들은 대부분 경제건설현장과 군사훈련과정에서 발생하며 86년 9월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15만명의 병력이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된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숫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안전사고 발생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92년 4월 8일, 5년 6개월 만에 개통한 평양-개성간의 4차선 고속도로 공사기간에 약 2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김정일이 직접 지휘한 평양 광복거리의 아파트 공사기간(3년)에는 하루 평균 1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째, 북한은 남포시에 살던 4자매가 모두 농촌 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한 사례를 제시하며 도시근로자들의 농촌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이는 경쟁적 노력동원 방법의 하나로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부정적 현상을 『혁명적 낙관주의』의 환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에 주민들이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항해남도 은천군 성봉협동농장에 온 이당순, 이당선, 이당철, 이당출 4형제 처녀들은 도시에 있을 때 다같이 농촌에 나가자고 탄원해 자기들의 결심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털어 놓았음. 만이가 몸이 약하다고 아버지가 걱정하자 4형제가 당만을 믿고 살라는 뜻에서 형제들 이름에 당자를 붙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허락을 받아 남포시를 떠나 농장 5작업반 청년분조에 가서 일하게 되었음.<1994. 9. 13, 중앙방송 대담>

북한은 최근 당정 일꾼들과 근로자들, 세세대 청년들속에서 김일성 사망후에도 사회와 집단,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끊임없이 발양되고 있으며 이는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인덕정치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94. 11. 14, 중앙방송)

<주요 공산주의 미풍사례>

- ①신의주시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최근에 뜻하지 않게 화재를 입은 가정세대에 자기집 가정 식물들을 가져다 주었음.
- ②동대원구역 안전부장을 비롯한 안전원일꾼들은 울동과 재산 인동사이의 다리를 자체의 힘으로 새로 놓아 주민들의 교통상 편리에 도움을 주었음.
- ③청진시 부윤구역의 문옥희는 부모가 사망하여 어린 두 학생만 남은 집에 들어가 그들을 잘 보살펴 주었음.
- ④농업위원회 농산국 지도원 김일호는 김일성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알곡 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 갈 충성의 마음 안고 가족과 함께 신천군 재낙협동농장으로 진출하였음.
- ⑤신흥군 영광고등중학교 교원이었던 위철영과 이 학교 39명 졸업생은 영광의 혁명사적지와 잇닿은 신흥-부전 사이 도로관리원으로 집단 진출하였음.
- ⑥평양 맥주공장 노동자는 우리인민의 마음속에 혁명의 고향집으로 영원히 간직될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더 잘 관리하는 사업에 한생을 바치기 위해 백두밀영 혁명전적지 관리소 관리원으로 나섰음.

한편 북한의 여맹중앙위 제5기 16차 전원회의(1992. 12. 3)에서 여맹원들에게 현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이래, 여성근로자들이 건설현장과 탄광등에까지 활동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여성근로자들의 이같은 농촌 진출 및 중노동현장 투입을 계속 권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공산주의미풍 사례를 기존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미풍행위자의 전형이 탄부, 안내원, 농민 등 일반주민들 위주에서 현재는 시당 책임비서, 구역 안전부장 등 북한의 당정간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관료계층 ‘일꾼’ 들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한 것은 북한사회에 관료주의가 팽배한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도시에서 협동농장으로 자원, 힘든 일에 집단진출하는 사례를 중점 열거·선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북한사회에 노동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나. 계층정책의 변화징후

북한은 김일성방송대학 강좌프로인 『김정일 혁명역사』 시간을 통해 김정일은 출신성분이 순결하지 않은 “복잡한 군중” 까지 포섭함으로써 당과 주민들간의 일심단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일 동지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군중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음. 김정일동지는 복잡한 군중을 믿고 포섭하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서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어디까지나 본인의 현재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음.

김정일동지의 이와같은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복잡한 군중들이 다 교양 개조되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뭉치게 되었음. 이것은 전적으로 비록 몇몇지 못한 가정주위 환경이나 사회정치 생활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당을 따라오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따뜻히 보살피 주는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의 빛나는 결실임.<1994. 11. 5, 평양방송>

북한이 해방이후 수차례 걸친 주민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3계층 51개 부류)하여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북한의 성분분류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중앙당 집중지도사업(58. 12~60. 12): 불순분자 색출 차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 ▲ 주민재등록사업(66. 4~67. 3): 100만 적위대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 (직계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 ▲ 3계층 51개류 구분사업(67.~70. 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계층·부류별로 분류
- ▲ 주민증 검열사업(80. 1~80. 12): 김정일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북한의 이와같은 주민성분 분류사업은 체제유지의 위험요소인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주민들의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계층별 차별대우를 주민들에게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상위계층으로의 신분이동을 위한 끊임없는 충성과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김정일의 금번 조치는 주민들의 성분분류에 의한 차별화가 내 부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한 점이며, 내용에 있어서 『핵심군중』·『기본군중』·『복잡한 군중』 등 3계층에 어떠한 주민들이 속하는지를 열거하면서 『복잡한 군중』을 포섭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신동철.

<북한주민 성분분류표>

| 계 층 | 주 민 성 분 |
|--------|--|
| 핵심군중 | 영예군인, 전사자 및 피살자 가족 |
| 기본군중 | 노동자, 농민 및 지식인 |
| 복잡한 군중 | · 가정주의 환경이나 지난날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사람 · 적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용당한 사람 및 그 가족 |

북한은 『복잡한 군중』을 포섭하는 이유로 “첫째, 순결한 사람만을 가지고 혁명을 할 수 없고 둘째, 조국통일 투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복잡한 군중』에 대한 차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체제 공식출범에 앞서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이들에게까지 구현되고 있음을 과시·선전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들을 ‘혁명동지’로까지 지칭함으로써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된 주민들의 숫자가 이제는 일련의 유화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불평 불만을 무마하여 체제손상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 있다.

4. 소결론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북한은 정치적으로 정권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혁명성의 퇴조와 사회주의 통제의 이완현상을 경고하는 한편 수령중심의 집단주의에 입각한 각종 사상교양과 제반 근로·사회단체들의 군중집회를 열어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경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주민들의 의식주문제가 북한정권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외부세계와의 비교인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상적 방벽을 쌓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해왔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복잡군중을 포섭하고 공산주의적 미풍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북한사회의 부정적 현상들을 극복하고 주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원하는 대중조작에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는 북한당국이 국제정세의 흐름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동적 현상이 아닌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피동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Ⅲ. 증언에 나타난 주민의식구조 변화

1. 사회주의규범 해체과정

▽ 사회주의규범이 해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북한의 경제난의 심화이다. 이미 사회주의 원리로서의 공동생산·공동분배의 구조적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은 새로운 형태의 직매점 및 암시장의 성격이 짙은 장마당 등을 성행하게 하였다.<참조: 증언사례 - 경제침체 및 암시장 관련>

부족한 생필품의 공급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선호의 경향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범죄는 제반 분야에서 여러 형태를 띠며 나타나고 있다.

즉 식량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와 소매치기, 골동품을 밀반출하는 행위, 마약의 밀매행위 및 폭력조직의 등장 등 각종 범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참조: 증언사례 - 사회주의 이탈현상으로서의 각종 범죄>

현재 북한은 “양심과 국정가격은 없어진지 오래다”라고 할만큼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영상점망을 통해 판매되어야 할 각종 물품이 불법 유출되어 국정가격보다 평균 15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암거래되고 있다.

<주요 물품의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 비교>

| 구분 | 품목 | 단위 | 국정가격 | 농민시장가격 |
|-----------|-----------|------------------|-----------|-------------|
| 식품류 | 쌀 | 1kg | 8전 | 25원 전후 |
| | 옥수수 | 1kg | 6전 | 15원 전후 |
| | 쇠고기 | 1kg | 3.80전~9원 | 35원 전후 |
| | 돼지고기 | 1kg | 3원~4원 | 45원 전후 |
| | 닭고기 | 1kg | 10원 | 160원 전후 |
| | 계란 | 1개 | 17전 | 3원 전후 |
| | 사과 | 1kg | 50전 | 12원 전후 |
| | 술 | 0.5 l | 2원 | 16원 전후 |
| | 사탕 | 500g | 5원 | 75원 전후 |
| | 설탕 | 1kg | 4원 | 45원 전후 |
| | 식용류 | 1kg | 4원 | 60원 전후 |
| | 피복류 | 양복지 | 2.5m | 70원 |
| 체육복 | | 1벌 | 150원 | 550원 전후 |
| 운동화 | | 1켢레 | 14원 | 280원 전후 |
| 혼방양말 | | 1켢레 | 80전~1원 | 35원 전후 |
| 기타 공산품 | 칼라TV | 1대 | 750~1000원 | 25000원 전후 |
| | 흑백TV | 1대 | 650~900원 | 6000~8000원 |
| | 냉장고 | 1대 | 1400원 | 10000원 전후 |
| | 녹음기 | 1대 | 600~800원 | 5000~15000원 |
| | 전구 | 1개 | 50전 | 13원 전후 |
| | 재봉기 | 1대 | 220~350원 | 3000~4000원 |
| | 자전거 | 1대 | 380~1000원 | 2000~2500원 |
| | 장판지 | 13m ² | 10원 | 170원 전후 |
| | 무연탄 | 1 ton | 30원 | 150원 전후 |
| | 치약 | 1개 | 1.50전 | 3원 전후 |
| | 세탁비누 | 1장 | 30~50전 | 4원 전후 |
| | 세면비누 | 1장 | 1.20전 | 5원 전후 |
| | 공책(인민학생용) | 1권 | 25전 | 2~3원 |
| | 만년필 | 1개 | 3.50전~10원 | 7~25원 |
| | 크림(화장품) | 1점 | 1원 | 3~4원 |
| | 장농 | 1점 | 120원 | 400원 전후 |
| 담배 | 1갑 | 80전~1.20전 | 15~20원 | |

둘째,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폐쇄사회속에서 지냈던 사상을 헤이하게 하고 중국이나 소련의 발전상과 남한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80년대 후반들어 외국관광객 유치,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 소련·동구 유학생 소환 등으로 외부세계가 조금씩 북한사회내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일반주민들도 외부세계와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교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귀순자 여만철의 증언을 보면 북한주민들의 비교인식 능력은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인모 노인의 송환시 오히려 그의 진료기록의 방대한 양을 보고 남한의 의료기술을 추측하거나 대학생들의 시위장면속에서도 서울거리의 발전상을 인지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인모 노인이 북으로 송환되던 모습과 더불어 남쪽의사들이 이노인의 전신을 구석구석 엑스레이로 촬영한 사진들을 넘겨주는 모습을 북에서 방영하였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인민들은 한편으로 남쪽에서 넘겨준 방대한 진료기록에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음.

색텔레비전(칼라TV)에선 남한에서 벌어지는 대학생들의 반정부시위나 농민들의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집회 장면을 방영하지만 참가자들이 입는 옷차림이나 즐비한 빌딩, 상점이 들어선 서울 거리를 볼 수 있음.

세째, 경제적 궁핍에서 오는 각종 부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층과 결탁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당의 제도적·조직적·물리적 통제는 사회주의 일탈현상으로서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력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다.<참조: 증언사례 - 사회주의 일탈현상으로서 각종 부조리>

하부 집행기관의 담당책임자들이 뇌물을 제공받고 불법으로 제공자의 요청을 허가해주며 주택배정, 병원입원, 직장배치, 여행허가 등 정상적인 행정적 조치사항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불허하는 등 부조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한체제의 통제력은 느슨해지고 있다.

당간부 및 외화벌이 회사 사장들은 벤츠를 보유하고 일제 맥주, 양주 및 양담배를 선호하며, 무역인과 외국 출장자는 귀국시 외제 선물이나 미화현금을 고위층에 상납하여 동 직책에서 오랜 근무와 차후 출장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당간부들에게 미화·TV·냉장고 등을 선물할 경우 직장배치는 물론 승진까지 가능하는 등 이들의 매관매직으로 말미암아 주민들 사이에 “10만불이면 국장, 20만불이면 부부장이 된다”는 냉소적 표현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생활규범은 경제침체와 공동분배 구조의 균열에 따른 궁핍한 생활,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에 따른 비교인식 능력의 형성, 권력형 각종 부조리 현상으로 말미암아 점차 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언사례 - 경제침체 및 암시장 관련>

- ◆ 93. 3 김정일은 유류, 전력, 원자재 등의 부족으로 공장, 기업소 등의 가동율이 떨어져 유희인력 증가로 이들을 농촌지원에 동원할 것을 지시함.(백영길)
- ◆ 93. 8 이후 식량배급이 전면 중단되어 가족이 심한 식량난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었으며, 여행증 발급이 쉽지 않아 무단으로 식량구입을 위해 여행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5-10명 단위로 1장의 식량구입여행증을 발급함.(여만철)
- ◆ 용지난이 극심하여 93년 이후 교과서를 감량 제작하여 새교과서는 학급당 5-6권만 배급하고 5명당 현교과서 1권씩을 지급함.(여만철)

- ◆ 외화벌이 일환으로 희귀곤충인 조롱딱정벌레, 홍줄나비 등과 청개구리, 들꽃 등 진귀한 동식물을 중국내 곤충회사를 통해 외국에 수출하여 멸종할 위기에 있음.(재충교포)
- ◆ 왕재산 여관에 수용된 후 1회용 비누 1개와 칫솔을 지급받았는데 비누는 거품이 나지 않았으며 칫솔은 2일이 지나자 솔부분이 다빠져버려 새 칫솔을 몇번이나 부탁하였으나 주지않아 보름동안이나 양치질을 못했음.(배용문, 이상찬)
- ◆ 조사시 쓰던 연필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연필을 구한다고 나갔다가 2시간동안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며 먹물을 가져와 만년필로 찍어쓰고 종이가 부족하다며 앞뒤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음.(배용문, 이상찬)
- ◆ 통강냉이도 제대로 못먹고 한집에 3-4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으며 고깃국은 1년에 2-3회 정도 먹고 두칸 방중 겨울에는 난방이 어려워 온식구가 한방에서 자며 우리가 살던 함흥 회상지구에서 제일 좋다는 집도 방이 세칸임.(이금옥)
- ◆ 암시장에서 TV, 옷가지 및 가재도구를 팔아 여비로 일화 3만엔을 마련함.(여만철)
- ◆ 함흥에는 시내 한복판에서 매달 1일, 11일, 21일에 열리는 3일시장이 있고 장마당은 구역별로 매일 열리고 있음.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대략 500명 정도이고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며 장마당에는 중국제 옷도 나오고 돈만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개 구입할 수 있음.(이옥금)
- ◆ 직매점에서 8·3제품을 취급하는데 이는 김정일의 8월 3일 지시에 의해 비누, 양말, 런닝셔츠와 같은 생필품을 국가에 납품하지 않고 인민소비품으로 직매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말하며 직매점에서 파는 물건은 양이 많지 않은데다 장마당보다 훨씬 싸기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움.(이옥금)

<증언사례 - 사회주의 일탈현상으로서의 각종 범죄>

- ◆ 80년대 중반부터 개성 동지의 고분 도굴 및 암거래 장사꾼이 재충·재일교포 대상으로 금불상, 자기류, 고서화 등 골동품을 밀반출하여 암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백영길)

- ◆ 남포무역은행 외화과장으로부터 일화 310만엔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돈벌이를 목적으로 골동품장사를 하려다 사기를 당했음.(김대호)
- ◆ 92. 5 제지기계공장 노동자인 친구 J와 모의하여 적동 200Kg을 빼내어 중국 담배 100갑과 교환하였음.(허철)
- ◆ 금 및 골동품 밀매 사실에 대한 탄로를 우려함.(진광호)
- ◆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군제대자들이 뇌물제공 등 편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자(노동불능자)판정을 받아 직장에 배치되지 않은 채,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등 평남 안주와 같은 소도시에도 땡감패, 갸들패 등 8개의 조직이 자생하고 있으며 암거래, 절도, 강도 및 테러를 자행하고 있음.(재중교포)
- ◆ 92. 12 속도전 청년돌격대 부소대장 재직중 소대원들과 보위부 창고에서 식량을 훔쳐내었다가 발각되었음.(김형덕)
- ◆ 재러 벌목사업소 및 벌목공들이 북한으로부터 약담배(아편)를 밀반입하여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밀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아편은 벌목공들이 최초 파견시나 휴가차 방북후 임지귀환시 100-150g씩 숨겨오거나 북·러시아간 국제열차 기관사들과 공모하여 밀반입하고 이는 함남북에서 재배·제조되는 10-30g짜리 소형 아편덩어리이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병원이라는 표시가 각인된 300g짜리 의료용 아편도 취급되고 있으며 알선책을 통해 러시아인들에게 100g당 미화 2000불에 암거래되는 데 의료용 아편은 순도 90%로 품질이 보증되어 인기가 좋음.(벌목공 엄만규 등 8명)
- ◆ 형편이 어려워니 도둑과 강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지난 86년에는 함흥 호랑천에서 젊은이가 공개처형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공개처형된 이유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주인을 찔러 죽였기 때문임.(이옥금)
- ◆ 함흥 시내에는 전기버스가 다니지만 정전이 돼 몇시간씩 서있기 일쑤이고 너무 비좁아 버스안에는 소매치기가 많기때문에 노인이나 여자들의 속옷밑에 차고 있는 주머니도 감쪽같이 빼내가버림.(이옥금)
- ◆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식량이나 옷가지를 훔치는 생계형 범죄도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패싸움이 잦고 말을 함부로 해 부모들이 입단속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지라 자녀를 타이르 때면 보위부 눈깔을 조심하라는 말을 잊지 않음.(여만철)

- ◆ 94. 7 중국교포의 안내로 도문시 양수진 양수촌에 도착하여 두만강 강변 갈대숲에서 북한인 4명을 접촉, 그들이 소지한 고서화를 사려는 순간 북한군 7명에 체포되어 강제 피납됨.(배용문, 이상찬)

<중언사례 - 사회주의 일탈현상으로서의 각종 부조리>

- ◆ 사회안전부 요원에게 연변노래(남한가요 포함) 테이프 단속을 빙자하여 녹음기를 갈취당하는 사례가 많음.(김광욱)
- ◆ 음주후 지도원을 구타하였으며, 사회안전부 재직시 교통사고 목인처리로 수뢰하였는 바 이는 북한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일임.(여만철)
- ◆ 인민위원회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았음.(김대호)
- ◆ 별목장에서는 간부들이 배치, 휴가 등 인사문제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직종배치시 상차중대는 1만루블, 목편중대(종이원료 생산) 및 건설중대는 1만 5천루블, 기계수리공 및 건물 관리요원으로 배치하는데는 2-3만루블씩 착취하고 배경없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노동자들은 별목장내에서 가장 힘든 곳인 산지중대에 배치함. 휴가의 경우 기술공은 3년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3년이 지나면 45일간의 휴가를 실시하고 4년차부터는 연1회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첫 휴가시는 5만루블, 두번째는 3만루블, 세번째부터는 1만루블씩 상납하였음.(별목공 최정남 등 5명)
- ◆ 88년 결혼후 배정받은 가옥을 초급 당비서가 가로챘으며 89년 9월 도당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별목공으로 파견된 후 30만루블중 20만루블을 93년 7월 당자금으로 강제 착취당하였음.(장일운)
- ◆ 호텔안전원에게 외화바꾼돈 140원, 담배 30갑, 맥주 2상자 등을 뇌물로 주고 여행증명서를 입수하였음.(진광호)
- ◆ 종래 러시아 파견 별목공 선발시 미혼자도 포함(선발인원의 5%미만)시켜왔으나 탈출자들의 대부분이 미혼자라는 이유로 89년이후 미혼자들을 선발에서 제외함에 따라 별목공으로 나가려는 미혼자들은 파견후 복귀시 재봉틀, TV 등을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허위 결혼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별목공 엄만규 등 8명)

- ◆ 강원도 무역관리국이 외화벌이로 핵분열촉진제인 리튬을 팔려하나 판로를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역관계로 친밀한 동 관리국 지도원을 통해 자신이 판매해 주는 대신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94년 1월 중순 리튬 2Kg을 받아 중국으로 건너감.(김동훈)
- ◆ 자강도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자의 친척방문 국경통행증을 발급 받아 93년 12월 초 중국으로 탈출하였음.(이철수 가족)
- ◆ 함북 온성소재 왕재산 여관에 수용된 지 1주일이 지난후부터 밤에 감시조들이 중국화폐 100원(한화 1000원 상당)씩을 내면 술을 사다주겠다고 제의하여 200원을 주자 술과 담배를 사다주어 함께 먹었음.(배용문, 이상찬)
- ◆ 집배정은 행정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한 힘겨루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새집이 지어지면 당이나 사회안전부의 간부들이 들어가고 이들이 살던집은 그 다음 간부들이 물려받는 식으로 쪽 내려가게 됨. 집배정 때에는 시당 책임비서까지 끼어들만큼 온갖 백과 뇌물이 동원됨. 그러니 일반주민에게까지 차례가 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님.(여만철 부부)
- ◆ 남편도 뇌물을 먹고 사회안전부에서 쫓겨났지만 사는 형편이 나빠질수록 뇌물고이기(주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뇌물이나 백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으며 우리도 뇌물을 고여본 적이 한두번이 아님.(이옥금)

2. 주민의식구조 변화

북한당국이 수령론에 입각한 사상교양을 강화해 오는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아래 그들의 가치관을 정돈하여 살아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주체사상보다는 생활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 권력의 강력한 통제력에 마지못해 쫓아가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에 조직적인 저항보다는 생활에 대한 불평을 통해 잠재적 저항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녀들을 아끼고 행복한 결혼의 척도로 금전적 배경을 선호하는 것도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주민들이 도박행위, 이자놀이 및 불법 주택임대와 같은 사회주의적 생산·분배양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들의 이자놀이 및 주택 불법임대 등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배급주의 사상과 각종 부조리 등에 편승하여 나타나는 반사회주의적 행위이며, 북한당국은 경제적 궁핍과 맞물려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박행위의 경우 과거에는 주민들간의 주패 및 마작이 순수한 오락이었으나 도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중교포 및 화교들을 통해 전파된 고스톱이 성행하여 화투 1목당 200원(북한 노동자 3달 월급)을 호가함. 이자놀이의 경우 지금까지 돈을 차용시 무이자이었으나 1989년경부터 함남·북지역에서 별목공, 화교, 암거래 장사꾼 등 사이에 사채놀이가 성행하고 1990년 이후에는 사채금리가 10~20% 수준임. 또한 주택 불법임대의 경우 1988년경부터 불법으로 주택임주권 매매행위가 성행하여 최근에는 주택배정에 참여하는 시·군 관련부서 요원들까지 음성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포 및 당간부들에게 일정한 금액(약 30만원~100만원)을 은행에 입금시키면 대지를 분할해 주고 개인능력으로 주택신축이 가능함. 귀순화교 왕덕명은 택지 50평을 분할받아 기와집에 방 3칸을 건축하였으며, 귀순자 김정식은 단층 2세대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면서 9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증언함.

때문에 주민들은 자녀결혼의 척도로 출신성분을 따지기 보다는 재력을 선호하게 되어 이제는 사회적 신분상승이 삶의 절대적 수단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나 순진함, 미숙한 상술 및 소비절약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가치관은 점차 화폐가치를 인정하고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증언사례>

- ◆ 남한 대중가요로 알려진 연변노래를 애창함.(김광욱)
- ◆ 북에서의 생활은 되는데로 시키는데로 살아가는 것임. 줄서라 하면 줄서고 박수치라하면 박수치고 구호외쳐라 하면 외치고 회의전에도 연습을 함.(이옥금)
- ◆ 다섯 식구가 한밥상 받기가 어려운데 두아들이 아침 6시 30분에 학교에 가면 이어 딸아이, 남편이 따로따로 출근함. 저녁도 마찬가지로인데 애들이 배고파서 저녁을 빨리 달라고 해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줌. 그저 저녁먹고 TV 보는게 아이들 일이지만 그것도 정전이 자주 되어 다른 동네 친구집에 가서 놀기도 함.(이옥금)
- ◆ 북한에선 휴일이 직종에 따라 다르며 노동자는 목요일, 사무원은 일요일, 상점은 월요일이니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것이 어렵고 휴일에는 밀린 잠이나 실컷 자는 게 일임.(여금주)
- ◆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당간부들 앞에서도 말조심을 별로 하지 않음. 나도 평소 알고 지내던 당간부에게 내놓고 불평을 한적이 있음. “부부장 동지, 사는 게 우째 점점 이렇소?”라고 했더니 그는 “모르지...”라고 말끝을 흐리기에 “그래도 동지는 우리처럼이야 안 살았지요?”하고 따졌더니 “야 야 우리집에 와봐라, 우리도 똑 같다.”라고 했음. 나이든 사람들은 “왜정때보다 못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나 몇년 전만 하여도 이런 말을 하면 영락없이 정치범으로 몰렸지만 요즘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김.(여만철)
- ◆ 자녀들이 연애를 할 때도 상대편 아이가 부잣집이면 모른 척하지만 가난뱅이이면 사위나 며느리감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앞장서 말림. 과거에는 출신성분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돈이 우선임.(여만철)

3. 청소년의식구조 변화

북한에서는 청소년세대를 ‘혁명의 주력군’, ‘혁명의 교대자’, ‘혁명의 전위’, ‘주체위업의 계승자’ 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혁명의 주체이자 전위로 국가적 역량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통제하는 각급 사회단체들인 조선소년단, 사로청, 교도대, 여맹, 붉은 청년근위대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노동당의 직접적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정치적인 조직생활이 획일적으로 강요되며 당의 지도원칙과 혁명이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이들 청소년들이 조직적인 집단주의 생활양식과 맹목적 복종이 무한정 수용되어야 할 내적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어릴 때는 자아의식이 발달하지 못하지만 고등중학교 졸업을 전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과 북한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과 더불어 외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며 북한의 현실적 조건과 비교하여 심리적 갈등속에 이중적 삶의 형태를 자아내게 한다.

귀순자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요도시 청소년들이 디스코풍의 노래를 즐겨듣고 청바지, 나팔바지, 원피스 등 새로운 의상을 추구하며 당·정 간부자녀들 사이에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는 등 점차 서구풍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중 성분불량이라는 사회불평등구조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강·절도 및 폭력조직 구성 등 범죄적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귀순자 김선일은 증언하고 있다.

깡패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고등중학을 나온 뒤 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성분이 나쁜 탓이다. 북에서 남자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당원이 될 수도 없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되기 어렵다. 근자에는 결혼하기도 힘들게 됐다. 성분이 나빠 군에 못가는 사람들은 곧바로 당에서 배치한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연히 좋은 일자리가 주어질 까닭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깡패생활을 하게 된다. 일과 후에 동료들과 어울려 강도·절도·강간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음.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과거에는 군관을 선호하여 제대시에는 당원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최근에는 군입대를 기피하는 한편, 탄광, 광산 및 벌목장 등 힘들고 위험하며 더러운 일을 싫어하고 부수입이 많은 봉사부품 일꾼, 산림감독원, 사진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증언사례>

- ◆ 91년 3월부터 92년 12월까지 고등중학 동창생들과 몰려다니며 3회에 걸쳐 안전원 등을 구타하였음.(백영길)
- ◆ 젊은층에서는 생활이 힘들거나 범법행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지면 중국이나 소련으로 도망가 살면 된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백영길)
- ◆ 90. 8 “바람 바람 바람” 등 남한 노래를 들으며 디스코를 추다 안전원에 적발되어 도주하였음.(백영길)
- ◆ 92. 7 친구들 7-8명과 술을 마시며 농담조로 남한 대학생들은 전대협이란 조직을 결성 정부와 투쟁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우리도 마음맞는 동무들끼리 자청련(자유청년연합)이란 단체를 결성해 보자고 제의함.(허철)

- ◆ 92. 12 당간부 자녀들과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다 적발되었음.(진광호)
- ◆ 94. 1 제일 조모가 보내준 생활비 등 일화 27만엔, 미화 3000불을 소지하고 평양 양각호텔에 투숙하였음.(진광호)

4. 여성의식구조 변화

1991년 당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5세부터 55세에 이르는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640만이며 전체근로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은 49.8%였다.<통일원, 북한개요(1992) p.25, p.301;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1993), pp. 30 - 31.>

북한 여성 취업자 전체의 약 90%는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는 산모 역시 직장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복귀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여성을 노동력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유년시절부터 집단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기에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 체제이익에도 부합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북한여성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2중부담을 안고 있다.

남자 역시 법률상 동반자로서 가정생활의 임무를 분담토록 되어 있으나 가정생활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고 남녀의 역할변화라든가 대등한 업무분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 본적도 없다.

로동당의 외곽단체인 여성단체 ‘조선민주여성동맹’은 북한 노동당의 공식로선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에게 집단주의 의식을 전달하는 임무만을 갖고 있을 뿐 남녀평등에 관한 비판적 논의나 사회 정책적 문제점에 관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의 부담속에서 생활하는 북한여성들에게도 의복형태 및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던 작업복, 검정 통치마와 흰 저고리 차림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취를 감추고 특히 19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북한당국은 여성의 바지착용과 검정옷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1990년 ‘인민소비품 본보기’라는 최초의 디자인전문 책자를 통해 의류, 신발, 가방 등 생필품을 형태, 색상, 무늬, 장식별로 40,800여가지를 도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동청년’, ‘천리마’, ‘조선여성’ 등에 계절별로 옷 입는 방법과 헤어스타일을 계속 게재하였으며, 1991년 4월 평양에서 ‘총련합영제품’ 전시회라는 패션쇼를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러한 의복형태와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젊은 여성들의 직업관

에 영향을 미쳐 80년대 말까지는 교통안전원, 간호원 및 교원등이 가장 인기있는 직업이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 물품구입이 용이한 경공업제품 판매원, 백화점 직원, 호텔 및 식당 요리사 등 봉사부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의 결혼관 역시 과거에는 혁명동지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당원이 가장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부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농촌, 탄광지역 등 벽지 총각들과의 결혼을 회피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외화 및 물질을 위한 대가로 정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양시 대동강지역, 해운항만지역 및 신의주 등 국경지역에는 당간부 및 외국교포를 대상으로 매춘지역이 생겼다고 귀순자들은 전하고 있다.

<증언사례>

- ◆ 북한 노동당에서는 당기관 타자수, 교환원으로 배치한다며 전국 고등중학교 2-4학년중에서 미모가 뛰어난 여학생을 선발하여 실제로는 평양소재 예술학원, 음악무용대학, 영화대학 등에 편입시켜 집대원으로 양성하며 대학을 졸업하면 집대원, 성악조 등으로 편성, 금수산의사당, 중앙당 운영 호텔 등에 배치하여 고위 간부등의 술시중 및 김부자별장 연회와 외국인초청 연회시 술시중을 들고 있음.(김광욱)
- ◆ 여자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장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함. 때문에 특별한 직종이 아닌 일반 생산단위(생산직)에 다니는 여자들은 공장에서 휴직 권유가 있으면 쉽게 직장을 그만두며 집안살림만 하고 있으면 식구들 생계유지가 힘들어 암시장을 통해 장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는 남편보다 돈을 더버는 경우가 많음.(이옥금)

- ◆ 함흥시 회상구역의 우리 동네 인민반에는 23가구가 있는데 한달에 서너번씩 인민반회의가 열리고 주로 여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서로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알고 지내며 만일 어느집이 살림살이를 장만하면 대단한 화제거리가 됨.(이옥금)
- ◆ 북한 주부들은 내일 아침은 무엇을 끓여 먹나부터 생각함. 구멍탄도 집에서 직접 찍어서 말려야 하며 질이 나빠 하루에 서너장씩 갈아야 하는 데 구멍탄을 태우면 콧구멍이 새까맣게 됨. 시간만 나면 집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장마당이나 시골 친척집을 돌며 식량을 구입해야 함.
- ◆ 제가 살던 인민반에 23가구가 속해 있었는데 이중 직장에 나가는 주부는 한명밖에 없었고 이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임. 처녀들도 직장에 안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간호원같은 비생산단위는 다니지만 공장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억지로 휴가를 주거나 휴직을 강요하고 휴직하면 식량배급량이 하루 600g에서 300g으로 줄어듦.

5. 소결론: 북한주민의식 변화특징

「북한사회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간개조원리를 체제유지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기본적 생활방식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수단적 방편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개인 생활은 집단주의적 생활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

원천적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개인의 창의성과 인격의 자율성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제도적으로 배제된 채 권력에 대한 끊임 없는 복종과 ‘사회주의적 이상’만을 명분으로 강요당해 온 북한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질곡만을 거듭해왔다.

북한 주민들의 날로 심각해지는 궁핍한 생활상은 사회주의 규범인 생산수단의 공유화, 공동분배, 협동·집단의식 등으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형편이 되었으며 이러한 규범이 이제 서서히 해체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즉 부패, 거짓, 절도 및 부조리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혼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규범과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현실과 규범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귀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이해에 의해 지배되는 이중적 사회의 모습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IV. 사회통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통제는 범죄에 대한 반응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적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범죄행위의 증가로 말미암아 개인적 자유를 구속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법적·행정적·사회적 통제기제를 발달시켜왔다.

이와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 사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탈이라 할지라도 쉽게 위법의 형태를 띠게되는 객관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사회통제는 일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해 연대감과 동일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사상적 통제와 법적·제도적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화형·사형·강제노동 등 직접적이고도 정치적인 통제정책을 병행하여 주민들을 통제하여 왔지만 오히려 잠재적 범죄인구를 양산하고 있다.

여기서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정책에 대한 역기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당국의 기존 대응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성분분류 관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개방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적 신분이 출생시에 이미 결정될 뿐만 아니라 20세전후의 대학입학시에 성적보다는 성분조사에 의하여 진학이 결정되는 등 철저한 성분분류로 주민들을 통제하여 왔다.

<증언 사례>

- ◆ 조부의 6·25 당시 남한 협조에 따라 성분불량가족으로 분류되어 대학진학과 입대 및 입당이 좌절되었음.(장일운)
- ◆ 87. 8 고등중학교 졸업후 안전원직을 지원하였으나 북송교포라는 이유로 탈락되고 92년 12월 당간부 자녀들과 음란비디오를 시청하다 적발된 후 본인만 북송교포 자녀라는 이유로 6개월간 구류를 살았음.(진광호)
- ◆ 83. 6 군복무시 군사정치대학 진학을 지원하였다가 월남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안충학)
- ◆ 90. 7 고등중학교를 졸업후 인민군 입대 및 대학진학을 모색하였으나 조부 김정후(90년 사망)의 6·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 등으로 대학진학이 좌절되었음.(김형덕)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게는 신분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출신성분이 좋은 자라 할지라도 북한당국은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통제강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분을 재분류하여 성분불량자로 불리는 잠재적 체제도전자를 만들고 있다.

재러 입업대표부에서는 벌목공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범, 강제송환대상 행정대열 등으로 구분하여 남한방송 청취자, 벌목장 무단이탈자(2개월 이상), 남한물품 및 서적취급자, 체제비판자는 정치범, 밀주제조자, 사업소 승인 없이 외화벌이를 한 자, 외국비디오를 본 자, 폭행한 자, 러시아여상과 관계를 가진 자 등은 강제송환 대상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 간부의 통제에 비협조적인 자, 러시아어에 능통한 자, 파견자중 고아나 미혼인 자, 5년이상 근무자 등은 행정대열(조기귀국)로 분류하여 관리함.(벌목공 최청남 등 5명)

아울러 이들 성분불량자들을 특정지역으로 이주시켜 중점관리 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그들의 탈북사태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이는 부속 참고자료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귀순자의 13%가 귀순동기로 성분불량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국경지역 주민들중 범죄자, 탈북우려자, 성분불량자 등을 재배치 대상으로 분류, 94년 하반기중 내륙지역의 공장,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킬 예정이라고 함.(국내기업인)

92. 2 김정일의 나진-선봉지역을 경제개방지구로 지정 국가경제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여 성분불량 주민을 타지역으로 내보낸 뒤 사상무장이 잘된 주민을 이주시키고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에 나진-선봉 전담국을 신설하였음.(조명철)

2. 대내 통제조직 강화

북한사회의 모든 개인 및 조직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여 계통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전주민들은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 등 2차적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당의 지시에 따라 사회·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종 행정조직들인 인민반 및 각종 학습반을 통해 주민들은 사상과 일상적 생활을 점검받고 지도받는다.

따라서 북한주민은 계통적이고 중첩된 사회조직 속에서 사생활 및 직장생활을 통제받고 있으며 이들의 일탈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검열위원회 및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등의 사찰기관을 중첩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찰기관들은 김정일의 지시로 당외곽단체들과 합동으로 각 시도에 사로청규찰대를 조직하여 풍속사범인 17세이상 문제청소년(무단결근자, 근무불성실자, 패싸움자 등), 장발족, 여성바지 착용자, 군복착용 일반주민, 김일성뺀지 미착용자, 담배꽂초 버린자 및 고성방가자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는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제거를 위한 단속반을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및 기관의 모범자로 합동조직하여 당지시위반 및 정책에 대한 불평·불만자, 근무태만자, 국가재산 남용 및 과도한 전기·수도 사용자, 뇌물공여자, 암거래 장사꾼, 밀주제조자, 상습적 부부 싸움자, 미봉인 라디오 소지자, 남한노래 테이프소지자, 강간범 및 매음행위자 등을 단속하고 있다.

<증언 사례>

- ◆ 인민반회의를 통해 연변노래 가창금지 지시 및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의 녹음기 소지자 검열·검색이 강화되었음.(김광욱)
- ◆ 91.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소를 그만두고 무직상태로 소일하다 92년 5월 신의주 6·4그룹빠에 무직자로 단속되어 안전부 구류장에서 15일간 수감되었음.(허철)
- ◆ 러시아 벌목공의 잦은 탈출로 인해 국가보위부에서 평양시에 서신검열소를 설치·검열하고 당 조직지도부 및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급으로 검열단을 구성(24명)하여 러시아에 파견, 사상검열을 통해 40여명을 탈출우려자로 지목하여 강제 송환하였음.(국내기업인)
- ◆ 93년말 실시된 외국주재 북한 무역상사원 사상검열에서는 자본주의사상을 안고 있거나 공급유용 등 비리혐의 간부들을 평양으로 송환하여 대거 숙청하였고 중국 단둥시 용남산, 평양관식당 종업원들이 한국관광객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찔레꽃” 등 남한노래를 가창하고 팁을 요구하는 등 비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사상교육후 재파견하였음.(국내기업인)

비사회주의 범죄자중 중범죄자는 교화소에 수용하고,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안전부장의 결정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하며 무임승차·근무태만자 등 각종 규정위반자에 대해서는 직결심판을 통해 강제노동집결소 이송하여 15일~6개월동안의 강제노동을 시킨다.

노동교양소의 수용기간은 처음에 1년이었으나 89년 평양축전 이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자의 급증으로 수용한계 상황에 이르자 1992년 한때 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배려출소제를 도입하여 조기 출소시키는 등 교양보다 단순처벌에만 치중해오다가 1993년 10월부터 교양소 출소자들의 재범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조치하였음. 일부 노동교양소를 보면 평남 증산군에 11호 노동교양소, 평남 순천군에 55호 노동교양소, 평북 동림군에 66호 노동교양소, 평북 천마군에 88호 노동교양소, 함남 단천군에 99호 노동교양소 등이 있음.(김형덕, 전속도전청년돌격대원 94. 9. 8 귀순)

<북한의 범죄자 수용시설>

| 구분 | 내용 | 수용기간 | 비고 |
|---------|--|---------|---|
| 관리소 | 정치범·상습범 등 체제유지를 위해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수용하며 특수행정구역 소속됨. | 10년~영구 | 관리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특별독재대상구역)로 이원화되었으며,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하여 혁명화구역 수용자는 출소가 가능함. |
| 교화소 |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구금함. | 2년~10년 | 노동교화 대상자는 강제노동에 종사함. |
| 노동교양소 | 재판없이 경범죄를 수용하여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를 유도함. | 2년 | 수용자는 비전과자로 처리함. |
| 강제노동집결소 | 안전부 수사절차 없이 무단결근자 등 각종 규정위반자를 수용하여 무보수 강제노동을 시킴. | 15일~6개월 | 시·군 및 연합기업소 단위로 설치되었음. |

3. 주민사상교육 및 외부정보 유입차단

북한당국은 동구나 소련과 같은 체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더욱 철저히 교양시키는 한편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차단을 강화시켜왔다.

북한은 권력기반의 정당성을 주권재민이나 경제가 아닌 이데올로기 즉, 수령론에 입각한 주체사상에 두고 일련의 사회주의체제붕괴를 교훈삼아 주민교양을 강화시켜왔으나, 이같은 사상교양은 주민들의 실생활과는 갈수록 간극을 넓힌 채 주민생활의 거둬들인 질곡만을 강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인민교양시간에는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되도록 빠지려 하는데다 강연시간에도 흥미가 없어 턱을 괴고 졸거나 아예 엎드려 자는 사람도 적지 않음. 수십년을 똑같은 내용으로 사상훈련을 시키는데다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고 약속은 해가 갈수록 멀어지는 것을 밥통(위)이 느끼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끝이 듣지 않게 되었음.(여만철)

최근 방북교포, 소환유학생 등을 통해 외부정보가 부분적으로 유입되어 학생, 교수 등 인텔리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이거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투서, 반체제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체제불만 및 비판이 가시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베리아 별목 경험이 있는 노동자, 소환된 유학생, 해외주재 무역상사 및 외교부 직원 등은 외국생활 통해 북한체제의 폐쇄성, 낙후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 및 정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실패, 지도자 자질 등에 대한 불만 및 비판여론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비등해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사이에 그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사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증언 사례>

- ◆ 녹음기 입수시 반드시 분주소(파출소)에 신고하여 라디오 다이얼을 고정해야 하며 조중 국경무역이 활성화된 90년부터 중국이 더 잘 살고 있다고 북한주민들은 알고 있음.(백영길)
- ◆ 92. 9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상급교원(전임강사)으로 재직중 중국 유학으로 외부세계 실상을 알게 되면서부터 북한체제 모순을 인지하였음.(조명철)
- ◆ 옥류무역회사 지도원으로 근무할 당시 일본 및 중국 등 2회의 해외출장을 통해 북한체제와 남한의 발전상을 비교하여 인식하게 되었음.(김동훈)
- ◆ 러시아에 파견된 별목공들에게도 예외없이 외국방송 청취가 금지되며 특히 남한방송 청취시에는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엄격한 단속에도 간부들의 경우는 80-90%(약 1700여명), 일반 별목공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약 8-9000여명)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하여 한국의 자동차, 기계, 전자부문 공업의 발달과 밀입북 입수경, KAL기폭파범 김현희의 자유생활 등을 알고 있음.(별목공 엄만규 등 8명)
- ◆ 양강도 해산에서 압록강을 도강(백영길, 여만철), 함북 새별에서 두만강을 도강(김대호), 함북 회령에서 두만강을 도강(황광철, 황광일), 평북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도강(허철), 함북 무산에서 두만강을 도강(진광호)
- ◆ 러시아·중국 접경지역을 통한 탈북자가 급증하는데다 국경지역 주민들이 월경밀수, 외부정보 유입 등으로 사상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탈북방지를 위해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경 경비병들에게 탈북자를 체포시에는 군제대시 대학입학추천 우선권과 입당특혜를 주고 있음.(국내기업인)
- ◆ 특수부대 제대자중에서 당성이 강하고 무술능력이 있는 장교1명, 하전사1명, 조선족교포1명을 탈북자 체포조로 편성 중국 동북3성인 길림·요녕·흑룡강성내에 10여개조가 활동중임.(재중교포)

<외부정보유입 차단조치>

| 구 분 | 방 법 | 수 단 | 비 고 |
|------------|---|---|---|
| 일반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제도 강화로 국내여행통제 · 특수지역 설치 · 지방주민 평양출입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원: 공민증, 출장증, 신분증 · 일반주민: 공민증, 여행증 · 휴전선접경 40km이내, 해안지대 20km² · 성분심사후 평양여행 증명서 발급 · 평양외곽 검문소 설치 및 평양시내 검문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모순 실태의 주민간 전파방지 및 지방주민의 평양여행후 상대적 빈곤감발생 우려 |
| 잠재적 탈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지역 통제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도시지역 비밀조직 운영 · 압록강, 두만강변에 2km 간격으로 초소 설치, 병력증원 배치, 군견 배치 및 장애물 설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출자 체포시 민족반역자로 취급 인민재판을 통해 공개화형 및 총살형 |
| 해외 여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사전·사후 관리 철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전: 93년부터 해외 주재원 김정일 직접통제 및 사상무장교육, 출장 인원 최소화, 선발기준 강화 · 파견중: 92년부터 주3회 현지공관에서 사상교육, 파견기간중 소환교육 등 · 귀환후: 총화보고서 작성후 당조직지도부에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경험자를 710번 감시대상으로 분류하여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감시활동 강화 |
| 해외교포 및 외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급통제 · 해외자료·물품반입 검색 강화 · 체류기간중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부터 방북 해외교포 선별허용, 이산가족 및 서방기자 방북제한 ·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라디오, 출판물 유입 차단 ·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 및 전화도청, 외국인 평양시의 지역여행 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포: 통일사업 및 경제적 이용가능자 선별 · 거주 외국인: 평양시의 지역 여행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

| 구 분 | 방 법 | 수 단 | 비 고 |
|-----|-------------------|---|-----------------------------------|
| 방송 | · 라디오 · TV | · 유선방송시설, 고성능 라디오 사회안전부에 등록, 다이얼 라디오 다이얼고정후 수시점검 · 국경도시 중국TV시청 통제, 22:00이후 단전, 사회안전부 TV봉인 점검, 국경지역 전파방해 탐 설치 | · 93년 북한주재 외국대사관의 자체 위성수신 설비 철거요청 |

4.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정책(Carrot and Stick)

북한은 공동생산·공동분배라는 ‘집단적 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모든 생산양식을 독점하여 주민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생산된 재화가 일부 특권계층에로의 편중된 분배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산성하락과 함께 처우불만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통제정책이라는 채찍(Stick)을 위주로 하면서 당근(Carrot)으로는 김정일 명의의 ‘생일상’, ‘회갑상’, ‘결혼식상’, ‘감사편지’ 등을 일부 상징조작된 ‘영웅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들의 평양으로의 이주 및 주택제공을 하고 선전을 통해 주민들의 노력동원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시도하여 왔다.

이와같이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과학, 언론, 출판, 체육 및 외화벌이 사업 등 각부문에서 공헌을 경쟁적으로 벌이도록 영웅칭호(인민칭호와 공훈칭호 등)를 제정하여 김정일 생일, 당·정권 창건일을 전후해 시상하고 있다.

<북한사회 제반 영웅칭호>

| 칭호명 | 제정일자 | 대 상 | 칭호명 | 제정일자 | 대 상 |
|-------|------------|--------------------------|-------|------------|--------------------------|
| 인민배우 | 52. 6. 4 | 영화, 음악, 무용, 연극부문 | 공훈배우 | 52. 6. 4 | 영화, 음악, 무용, 연극부문 |
| 인민예술가 | 61. 7. 27 | 회화, 조각, 장식, 공 예, 작곡부문 | 공훈예술가 | 52. 6. 4 | 회화, 조각, 장식, 공 예, 작곡부문 |
| 인민방송원 | 66. 7. 1 | 방송선전사업 | 공훈별목공 | 62. 10. 18 | 입업부문에서 15년이 상 종사자중 선정 |
| 인민체육인 | 66. 10. 8 | 체육발전 | 공훈체육인 | 60. 11. 11 | 체육발전 |
| 인민설계가 | 70. 4. 28 | 인민경제발전과 인민 생활향상 | 공훈사양공 | 61. 1. 10 | 축산부문에서 15년이 상 종사자중 선정 |
| 인민기자 | 71. 11. 19 | 출판보도부문 15년 이상 종사중 선정 | 공훈기자 | 71. 11. 19 | 출판보도부문 15년이 상 종사자중 선정 |
| 인민과학자 | 73. 9. 3 | 과학연구기관 15년 이상 종사자중 선정 | 공훈의사 | 61. 4. 28 | 15년이상 의사중에서 선정 |
| 인민교원 | 80. 3. 15 | 20년이상 교원중 공헌한 자 | 공훈교원 | 52. 3. 29 | 15년이상 교원중 공헌한 자 |

<증언 사례>

- ◆ 러시아 별목공들의 노임을 각종 명목으로 통상노임의 40%까지를 공제하여 국고에 회수하고 있는 바 매년 김일성생일 선물비로 약 200루블, 김정일 생일선물비로 20루블, 제13차 평양축전시 20-100루블, 원동가급금(적오지 수당) 및 곤충가급금(위협수당)은 원천 환수, 노임총액의 20%를 입지별금(러시아의 환경훼손에 대한 부과금), 가지별금 3-5%, 조제별금 5%를 부과하는 등 노임을 착취하였음.(별목공 최청남 등 5명)
- ◆ 북송교포들은 재일친척들로부터 매년 20-40만엔 많게는 400만엔까지 송금받아 북한주민들보다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소속기관 및 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시 등에 헌금을 강요하였음.(진광호)
- ◆ 러시아 아무르주 띠따소재 별목사업소에서 운전수로 근무중 92년 4월 김일성 생일관련 충성금을 헌납하라는 지시를 거절하여 흑케르공(목재류는 작업공)으로 중노동을 하였음.(안충학)
- ◆ 김정일이 93년 10월 중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개최한 전국보위일꾼대회에서는 군 보위부 간부에게 93년 10월 말경 인민무력부에서 개최한 전군지휘관 회의에서는 전군 대대장 및 대대 지도원급 이상 간부들에게 흑백TV 및 녹음기를 선물하였음.(이충국)

- ◆ 중앙당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에서는 김정일 지시에 따른 은닉금과 발굴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발견자에게는 가족전원을 평양으로 이주시키고 광복거리 아파트 1동을 제공하고 희망직업 알선 및 상급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함.(김광욱)
- ◆ 외화난 타개를 위해 해외주재 무역일꾼에게 연간 200만불이상의 외화를 획득하면 외화벌이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가족동반 해외여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재중교포)

5. 통제정책의 역기능: 인권침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보호규정중 가장 대표적인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시하여 개별국가들에 지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구체적 실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국제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기초위에서 인간에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정신적 외압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상태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과 한편으로 자아실현의 완성을 위한 제반조건들의 성숙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등이 인권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권리를 사회주의체제와 당의 목표를 잠재적으로 파괴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감시·통제체제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인권단체나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증언 사례>

- ◆ 남한노래 청취와 안전원을 구타했다는 이유로 10년간의 중형이 예상되었음.(백영길)
- ◆ 87. 3 모친 채송옥이 2개월간 식량배급을 받지 못해 협동농장에서 강냉이 한가마를 훔치다 잡혀 15년형을 선고받고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음.(황광철, 황광일)
- ◆ 별목공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된 93. 2월에서 3월경 러시아 인권옹호검열처의 별목장 인권실태 검열에 대비하여 숙소도배와 함께 식당내부를 도색하고 목욕탕을 보수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인당 돼지고기 통조림 500g을 추가 지급하여 검열 당일 급식토록 하고 검열준비비용 명목으로 1인당 20원씩 공제하였음.(별목공 최청남 등 5명)
- ◆ 90. 3 인민부려부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 재직시 도청장비 구입을 위해 외국인을 만났다가 외국인 무단접촉 혐의로 평남 북창소재 제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2년간 강제노동을 하면서 인민들이 이유없이 구타당하고 하루에 영양실조로 2-3명씩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음.(강명도)
- ◆ 별목현장에 안전원으로 파견되는 국가보위부 요원들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별목공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무단외출, 결근, 부화(이성관계), 폭행사건, 한국산 물건구입, 한국인 접촉행위 등 위법행위 적발시는 각 사업소에 설치된 1㎡크기의 구류장에 감금한 후 평소 분량의 1/5에 불과한 식사량에 소금국, 열장무만을 배급하며 하루 1-3회 주로 심야시간대(22:00-23:00)에 조사를 빌미로 몽둥이, 구두발 등의 무자비한 구타를 자행하고 구타를 당하던 별목공이 합숙소에 잠깐 다녀오게 한후 현금(달러 및 루블화) 등 뇌물을 받으면 훈방함.(별목공 엄만규 등 8명)
- ◆ 식량을 훔쳐내었다가 발각되어 평성 노동교양소에 절도조종죄로 수감된 후 93년 8월 가혹행위를 못이겨 탈출하였으나 체포되어 93년 10월 악질탈출범으로 분류되어 함남소재 관리소로 이동중 재탈출을 하였음.(김형덕)
- ◆ 89. 8 별목공으로 재파견된 이후 불법장사로 약 7만루블을 벌었으나 92년 2월 안전원에게 전액 강제회수 당하고 동향감시마저 받게되자 핫김에 김일성 사진이 게재된 노동신문을 찢었다가 동 사실이 안전원에게 알려짐으로써 강제송환을 우려하여 탈출하였음.(정진만)

- ◆ 공개처형에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인민반에서 가보라고 권하기 때문이며 강제로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구경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당시 우리 인민반 23가구중에서 6명이 구경하러 갔다가 공개처형하기전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온 사람이 천막을 쳐놓은 안으로 범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는 동의 말이 오가고 잠시후 밖으로 나온 범인은 얼이 빠진듯한 모습이었으며 재판소 사람이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해 처형한다고 발표한 이후 젊은이를 나무등걸에 묶은 뒤 세사람이 5발씩 총을 쏘아 사살하였음.(이옥금)
- ◆ 범죄자들에 인권보장은 엉망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무시된 채 범인을 멋대로 구류장(유치장)에 억류하는 일이 대부분이며 내가 사회안전부에서 일할 때도 범인을 잡으면 구속영장이 없이 감금했고 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혁대를 풀게하고 조사한 일도 있었음.(여만철)

V. 북한사회 변화전망(결론)

현재 북한사회는 김일성 사망과 이에 따른 김정일로의 정권이 양을 앞두고 중대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북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까지 북한주민들의 뇌리에 절대자로, 신으로 부각되어 왔던 김일성을 어떻게 김정일로 대치하며 이에 알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느냐 하는 작업일 것이다.

사망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김일로의 공식적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명의로 모든 정책이 집행·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주석직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가 새로운 김정일체제에 와서 어떠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지만 김일성처럼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로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북한사회정책의 기조는 김일성시대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론'을 중심으로 전 인민을 주체화하는데 두어질 것이며, 수령론에 입각하여 수령·당·대중을 유일지도체계에 연결시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혁명적 수령관'을 구현하는데 들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김정일은 ‘김정일시대’에 맞는 주민생활향상을 추진할 것이나 경제침체 및 만성적인 식량난 등 북한자체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단기간에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해외자본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객 유치 등 기존의 ‘자력갱생노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기존 폐쇄정책의 고수로 인해 북한의 대외개방이 체제손상과 더불어 주민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개방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진적인 대외개방이라 할지라도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며 주민들이 이제까지 접해 보지 못한 자본주의 문물의 유입은 기존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주민사상해이 방지를 위한 사상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강화될 것이다.

결국 향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고수와 사상교양이 강조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식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귀순자의 사회적 배경 및 현황

1. 귀순자의 연대별 분포
2. 귀순자의 지역별 분포
3. 귀순자의 직업별 분포
4. 귀순자의 귀순동기별 분포
5. 귀순자의 귀순경로별 분포
6. 귀순자의 교육수준 분포
7. 귀순자의 현직업별 분포
8. 귀순자의 생활정도별 분포
9. 소결론

【귀순자의 사회적 배경 및 현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4년 10월 현재까지 귀순자는 총 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중 1950년대 귀순자 180여명, 사망·이민자 170여명, 순수 귀순자로 분류하기 힘든 자수·검거 전향자 등 150여명 등 500여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1960년 이후 순수 귀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배경인 출신지역, 귀순당시의 연령·직업, 귀순동기 및 경로, 현재 국내의 직업과 생활정도를 분류하여 북한사회의 일면을 보고자 한다.

귀순자를 통해 북한사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Microsoft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 200여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이를 통계처리 하였다.

1. 귀순자의 연대별 분포

귀순자들이 <표 4>와 같이 여러가지 동기로 인해서 북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북한 것은 북한사회의 안정도와 반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1970년대의 북한사회 체제가 여타 연대에 비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년대를 거쳐 90년대의 북한사회는 점차 불안정한 추세를 노정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들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1960년대 65명(31%)이 귀순한 이후 70년대 15명(7%)으로 감소한 이후 80년대 49명(23%), 90년대 80명(39%)으로 15%씩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이들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30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 구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도 | 비율 |
|-----|------|------|------|------|-----|-----|
| 10대 | 7 | 1 | 4 | 4 | 16 | 8 |
| 20대 | 46 | 7 | 25 | 29 | 107 | 50 |
| 30대 | 11 | 4 | 10 | 33 | 58 | 28 |
| 40대 | 1 | 3 | 9 | 9 | 22 | 11 |
| 50대 | | | | 4 | 4 | 2 |
| 60대 | | | 1 | 1 | 2 | 2 |
| 합계 | 65 | 15 | 49 | 80 | 209 | 100 |

2. 귀순자의 지역별 분포

귀순자들을 지역 단위로 살펴보면 평양(18%)>황해남도(14%)>평안북도, 함경북도(13%)>함경남도(11%)>평안남도(9%)>강원도(7%)>황해북도, 자강도(4%)>량강도, 남포, 개성(2%) 순이다.(<표2>참조)

귀순자 수가 가장 많은 36명을 차지하고 있는 평양특별시를 보면 80년대를 거쳐 90년대 2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중 26명이 제3국을 이용하여 탈북하였으며, 귀순자 수가 두번째로 많은 황해남도의 경우는 30명의 귀순자중 24명이 60년대 탈북하였으며 12명은 휴전선, 11명은 해상을 거쳐 탈북하였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이는 60년대 귀순자중 약 50%가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인 황해도와 강원도에서 휴전선 및 해상을 통해 탈북하였으며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는 중국 및 러시아 인접지역인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로 바뀌고 주요 탈북경로도 제3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2>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평양특별시 | 1 | 1 | 7 | 27 | 36 | 18 |
| 남포직할시 | 1 | | 2 | 2 | 5 | 2 |
| 개성직할시 | 2 | | 3 | | 5 | 2 |
| 평안남도 | 4 | 1 | 8 | 5 | 18 | 9 |
| 평안북도 | 13 | 5 | 4 | 6 | 28 | 13 |
| 함경남도 | 5 | 1 | 3 | 13 | 22 | 11 |
| 함경북도 | 4 | 3 | 12 | 9 | 28 | 13 |
| 황해남도 | 24 | 1 | 4 | 1 | 30 | 14 |
| 황해북도 | 3 | | 1 | 5 | 9 | 4 |
| 강원도 | 7 | 1 | 3 | 3 | 14 | 7 |
| 자강도 | 1 | | 1 | 7 | 9 | 4 |
| 량강도 | | 2 | 1 | 2 | 5 | 2 |
| 합 계 | 65 | 15 | 49 | 80 | 209 | 99 |

3. 귀순자의 직업별 분포

귀순자를 직업별로 보면 군인>당정원(로동당과 정무원 소속 근무자)>학생>별목공>기술자>선원>농어민>노동자>교원 등의 순이며 무직은 전체의 2%인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대별로 비교해 보면 60년대 귀순자중 군인, 농어민, 선원, 기술자 계급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90년대에는 당정원, 학생, 별목공이 약 70%로서 이들의 직업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 계급은 60년대 이후에는 더이상 탈북자가 없으며 별목공의 경우 한·소수교 이후 90년대 나타난 현상이다.

<표 3>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군인 | 20 | 8 | 13 | 5 | 46 | 22 |
| 당정원 | 6 | 4 | 7 | 17 | 35 | 17 |
| 학생 | | | 12 | 13 | 25 | 12 |
| 빌복공 | | | | 25 | 25 | 12 |
| 기술자 | 10 | 2 | 5 | 6 | 23 | 11 |
| 선원 | 10 | 1 | 5 | | 16 | 8 |
| 농어민 | 15 | | | | 15 | 7 |
| 노동자 | 3 | | 3 | 7 | 13 | 6 |
| 교원 | 1 | | 1 | 5 | 7 | 3 |
| 무직 | | | 3 | 1 | 4 | 2 |
| 합 계 | 65 | 15 | 49 | 80 | 209 | 100 |

4. 귀순자의 귀순동기별 분포

귀순자들은 귀순동기를 복합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원인을 위주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주요 귀순동기는 비교인식>처우불만(인권문제)>성분불량>처벌우려>동반귀순>체제불만>이성문제>복무불만>공급유용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당정원들에 의한 공급유용은 처벌우려의 일종으로 주로 90년대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한사회를 동경하는 비교인식의 시각을 가진 귀순자와 체제불만을 가진 귀순자가 60년대 전체 귀순자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북한사회 구성원이 분단이후 새롭게 북한에서 나타난 공산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70년대를 거쳐 80년대와 90년대에는 체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교인식과 체제불만이라는 귀순동기보다는 처우불만(인권문제), 동반귀순, 처벌우려, 이성문제, 성분불량 등 다분히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 주요 귀순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표 4>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비교인식 | 37 | 3 | 8 | 6 | 54 | 26 |
| 처우불만 | 3 | 4 | 4 | 26 | 37 | 17 |
| 성분불량 | 7 | | 4 | 15 | 26 | 13 |
| 처벌우려 | | 4 | 6 | 10 | 20 | 10 |
| 동반귀순 | 1 | | 11 | 7 | 19 | 9 |
| 체제불만 | 10 | | 2 | 6 | 18 | 9 |
| 이성문제 | 1 | 2 | 9 | 5 | 17 | 8 |
| 복무불만 | 6 | 2 | 4 | 1 | 13 | 6 |
| 공금유용 | | | 1 | 4 | 5 | 2 |
| 합 계 | 65 | 15 | 49 | 80 | 209 | 100 |

5. 귀순자의 귀순경로별 분포

귀순자들의 탈북 경로를 보면 90년대 들어와서 제3국을 이용한 경우가 96%(80명중 77명, 귀순자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상>해상>공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와서는 벌목공 25명과 유학생 17명은 제3국에서 직접 탈북한 경우로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전선을 통한 육상과 해상으로의 탈북은 감소 추세에 있다.

<표 5>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육 상 | 42 | 11 | 10 | 2 | 65 | 31 |
| 해 상 | 18 | 1 | 7 | 1 | 27 | 13 |
| 공 중 | 1 | | 1 | | 2 | 1 |
| 제3국 | 4 | 3 | 31 | 77 | 115 | 55 |
| 합 계 | 65 | 15 | 49 | 80 | 209 | 100 |

6. 귀순자의 교육수준 분포

귀순자들의 교육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고졸이 전체의 46%, 대졸은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이하는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졸은 7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귀순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및 대퇴의 경우 대졸로, 고퇴의 경우 고졸로, 중퇴의 경우 중졸로 분류하였음.)

귀순자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체제유지 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보다 열등하다는 정보가 유입되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귀순유학생의 “북한에서도 대학생 정도면 생각은 한다”는 증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표 6>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무 학 | | | 1 | 1 | 2 | 1 |
| 국 졸 | 9 | 1 | 1 | 1 | 12 | 6 |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중 졸 | 10 | 2 | 4 | 4 | 20 | 10 |
| 고 졸 | 34 | 6 | 23 | 34 | 97 | 46 |
| 대 졸 | 12 | 6 | 20 | 40 | 78 | 37 |
| 합 계 | 65 | 15 | 49 | 80 | 209 | 100 |

7. 귀순자의 현직업별 분포

귀순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90년대 귀순자중 55명을 제외한 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분류하여 <표 7>을 만들었다.

<표 7>에 의하면 회사원이 전체의 31%를, 은행원, 국영기업, 무직은 각 15%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업, 노무자, 공무원, 학생, 경비원 등은 10% 이하임을 알 수 있다.

60년대 귀순자중 회사원, 은행원과 무직이 60년대 귀순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무직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경우이다. 한편 80년대와 90년대의 귀순자는 은행보다는 회사원이 되거나 국영기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회사원 | 18 | 5 | 13 | 10 | 46 | 31 |
| 은행원 | 11 | 2 | 7 | 3 | 23 | 15 |
| 국영기업 | | 1 | 14 | 8 | 23 | 15 |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무직 | 15 | 1 | 5 | 2 | 23 | 15 |
| 자유업 | 6 | 2 | 2 | | 10 | 6 |
| 노무자 | 8 | 2 | | | 10 | 6 |
| 공무원 | 2 | 2 | 4 | | 8 | 5 |
| 학생 | | | 4 | 2 | 6 | 4 |
| 경비원 | 5 | | | 5 | 5 | 3 |
| 합 계 | 65 | 15 | 49 | 25 | 154 | 100 |

8. 귀순자의 생활정도별 분포

귀순자의 생활정도를 경제적 소득 및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하여 보면 중류층이 74%, 하류층이 19%, 상류층이 7%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귀순자들이 대체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있으나 하류층 29명만을 놓고 보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표 8-2> 참조)도 특징적이다.

또한 하류생활을 하고 있는 귀순자들은 직업이 없거나 노무자로서 60년대와 70년대 귀순자들중의 일부로 <표 8-1>과 <표 8-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귀순자들을 현직업별 분류와 생활정도별 분류를 대비한 <표 8-1>을 보면 절반 이상인 53%가 회사원(42명), 은행원(20명), 국영기업(20명)에 근무하며 중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

| 구 분 | 상 류 | 중 류 | 하 류 | 빈 도 |
|------|-----|-----|-----|-----|
| 회사원 | 1 | 42 | 3 | 46 |
| 은행원 | | 20 | 3 | 23 |
| 국영기업 | 2 | 20 | 1 | 23 |
| 무직 | 4 | 11 | 8 | 23 |
| 자유업 | 3 | 4 | 3 | 10 |
| 노무자 | | 3 | 7 | 10 |
| 공무원 | 1 | 5 | 2 | 8 |
| 학생 | | 6 | | 6 |
| 경비원 | | 3 | 2 | 5 |
| 합 계 | 11 | 114 | 29 | 154 |

<표 8-2>

| 구 분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빈 도 | 비 율 |
|-----|------|------|------|------|-----|-----|
| 상 류 | 6 | | 5 | | 11 | 7 |
| 중 류 | 38 | 10 | 41 | 25 | 114 | 74 |
| 하 류 | 21 | 5 | 3 | | 29 | 19 |
| 합 계 | 65 | 15 | 49 | 25 | 154 | 100 |

9. 소결론

북한 귀순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 조직에 대한 반발로 탈북을 시도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내부의 총체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화충격, 경제침체, 돈에 대한 사회가치의 변화, 정치적 억압 등 북한체제의 제반 모순이 북한주민의 탈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탈북의 가능성은 주민들에게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현상은 아직 북한체제의 존속에 장애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북한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1994년 12월 22일 인쇄

1994년 12월 26일 발행

발행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 강문인쇄사

통분 94-12-94